

제2순환로 1구간 변경협약 체결 맥쿼리·광주시 이면거래 있었다

2016년부터 3년간 광주시 재정지원금 규모 되레 증가
맥쿼리-윤 전 시장 측 수차례 협의 드러나...수사 필요

민선 6기인 지난 2016년 12월 제2순환 도로 1구간 변경협약을 체결하기 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이하 맥쿼리)와 윤정현 전 광주시장 캠프 관계자, 광주시와의 이면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체결한 협약을 변경하면서 2016년부터 3년간 광주시의 재정지원금 규모가 오히려 증가한다. 변경협약 체결 전 1구간 수납용역 및 도로시설관리용역의 통합관리업체 선정을 놓고 맥쿼리 관계자와 윤 전 광주시장 캠프관계자 등이 속한 업체가 여러차례 협의를 해온 정황이 최근 판결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4일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휘)에 따르면 최근 A산업개발이 맥쿼리 자회사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를 상대로 낸 '통합관리선정업체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A산업개발의 지위 확인을 기각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산업개발 측이 맥쿼리, (주)광주순환도로투자 임직원과 지난 2017년 3월 17일 통합관리업체를 위탁받기로 한 합의를 계약 체결로 인정하기 어

렵다고 판단했다. 또 통합관리업체 지위가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과 그에 따른 계약 지연손해금 5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산업개발은 윤 전 시장 캠프관계자인 김모(52)씨가 사내 이사로 재직할 업체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1구간 통합관리용역계약 체결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의결수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변경협약 체결 전인 2016년 9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주)광주순환도로투자 관계자가 A산업개발 측에 (주)광주순환도로투자의 2015년 임금 자료, 용역비 변경 내역, 외곽손익계산서, 제2순환도로 구간별 손익계산서 분석 자료, 2015~2016년 운영비용, 2017년 이후 최소 운영비용 추정치 자료 등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또 맥쿼리의 임원은 2017년 2월 28일 김씨에게 "전에 비해 단금이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정안의 개요, 비용에 관한 설명, 통합관리용역계약의 상세한 계약 문헌 등을 첨부했다.

하지만 (주)광주순환도로투자는 2018년

3월 30일 1구간 통행료 수납용역을 김씨가 속한 단체에, 도로 및 시설관리용역은 B업체에게 각각 위탁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1구간 변경협약 과정에서 김씨와 김씨가 속한 업체 및 단체가 맥쿼리, (주)광주순환도로투자 등과 어떤 과정을 거쳐 1구간 통합관리용역계약 체결을 논의하고, 통행료 수납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선 5기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근거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이하 맥쿼리)를 상대로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과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을 둘러싸고 법정분쟁을 벌여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민선 6기 들어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협약 변경에 나서 지난 2016년 12월 변경협약을 체결한 뒤 2028년까지 재정지원금 1014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광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시 재정지원금은 협약 변경 전에 비해 오히려 19억여원이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재정지원금은 당초 35억여원이 감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2억여원이 늘어나 변경협약 실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학 캠퍼스에 봄...봄...봄이왔어요 4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 하얀 매화가 만개해 봄이 왔음을 실감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초미세먼지(PM-2.5) 농도
4일 오후 5시 기준 (시간평균)



초미세먼지 '비상' 광주·전남 서쪽이 위험

광주·전남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오후 1시를 기해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광주 시 전역에도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PM10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는 광주 173 $\mu\text{g}/\text{m}^3$, 전남 서부권 157 $\mu\text{g}/\text{m}^3$ 로 기록됐다. 같은 시각 PM2.5 미세먼지 주의보의 시간당 평균 농도도 광주 124 $\mu\text{g}/\text{m}^3$, 전남 서부권 104 $\mu\text{g}/\text{m}^3$ 로 나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미세먼지(PM10)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PM2.5)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중국에서 서해상으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 대기정체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주·정차 차량의 공회전이 금지됐다.

광주시는 또 민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3곳에 작업시간의 조정 또는 단축을 권고했으며,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진공 흡입차·살수차 운행 횟수를 확대했다. 전남도는 사업장 23곳에 작업시간 조율을 요청한다. 또 노후된 여수시 호남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문제 단체장끼리 해결하자"

이용섭 광주시장 상생 제안

빛가람혁신도시의 공동발전기금을 두고 빛어진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 간의 마찰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6년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나주에 혁신도시를 두기로하면서 상호 약속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광주시가 한 발 물러서 '상생'이라는 대의명분을 강조하고 나섰다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마치 광주·전남간 상생협력에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일러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부터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상생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이익만 내세우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달 24일 한전 KDN에서 열린 제8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 나주시에 2006년 합의의 취지에 입각해 기금 조성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혁신도시 조성 비용을 이유로 2023년 이후에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나주시와 이 같은 나주시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전남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최근에는 광주시가 실무 협의 과정에서 혁신도시 내 민간분야 지방세 활용방안을 전남도와 나주시에 제안하면서 상호 불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시장이 이날 상생을 강조하며, 김영록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시장과 이 문제를 직접 풀기로 하면서 이 같은 마찰이 해소될 여지를 남겼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전남은 한 뿌리이며 공동운명체"라며 "매 사안마다 각자 도생하고 서로 경쟁하면 공멸이지만, 함께 손을 잡고 지혜를 모으면 상생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의 불필요한 대응 자제를 당부하고, "갈등과 분열적 소지가 있는 문제들을 상생 차원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도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천년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유치원 개학 연기 혼란
비리유치원들이 앞장섰다 ▶6면

KIA 타이거즈 최형우
"꾸준한 성적 위해 난 항상 간절" ▶20면

雪花秀

고귀한 적응의 생명력으로
피부, 새로운 힘을 갖다

NEW 설화수 진설크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본 적 있으요?
모든가 변치 않기를 바랄 때, 설화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젊음을 지켜내는 적응의 강인한 힘과
창정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신양삼으로 완성한 진설크림-
이제, 매일 더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피부의 힘을 가지세요

Sulwhasoo
TIMETREASURE
INVIGORATING CREAM
진설크림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